

보 도 참 고 자 료

(이 자료는 2006년 8월 16일(조간)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(한국노동연구원)

담 당 자	은수미 연구위원
작성일자	2006. 08. 14(월)
매 수	총 7 매(표지포함)

제목 : <산별전환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>

- ◆ 우리 연구원에서는 「산별전환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」에 관한 토론회를 8월 17일(목) 오후 2시 여의도 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함.
- ◆ 「산별전환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」은 2000년이후 기업별노사관계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노사관계 비용증가에 주목하면서,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의 측면에서 산별전환에 접근할 경우 찬반양론을 넘어서는 생산적 논의가 가능함을 제기
- ◆ 「산별전환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」은 산별노사관계를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기업별 노사관계와 비교·검토하여 산별전환이 비용이기보다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, 외국의 산별노사관계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형성에 필요한 노사정의 대응 방향을 제안함
- ◆ 내용
 -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본 산별노사관계: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
 - 선진국들의 단체교섭경험: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

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본 산별 노사관계

담 당 자	은 수미 연구위원
전 화	02)785-1803
매 수	4 매

- 이 글은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산별노사관계와 기업별 노사관계를 분석, 노사분규·교섭구조·교섭내용·조직형태의 모든 측면에서 기업별 노사관계 유지비용이 증가하며, 산별노사관계의 경우 단기적인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
- 더불어 산별전화의 단기적 비용을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대응방향으로 △중층적 노사정 협의, △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분리 및 교섭구조 설계의 유연성강화, △교섭구조 안정화를 위한 법·제도적 문제 해결, △고용형태별 규모별 격차완화를 위한 대안마련, △산별교섭을 위한 노사의 전문능력 제고 등의 5가지를 제기함

<주요 내용: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본 산별노사관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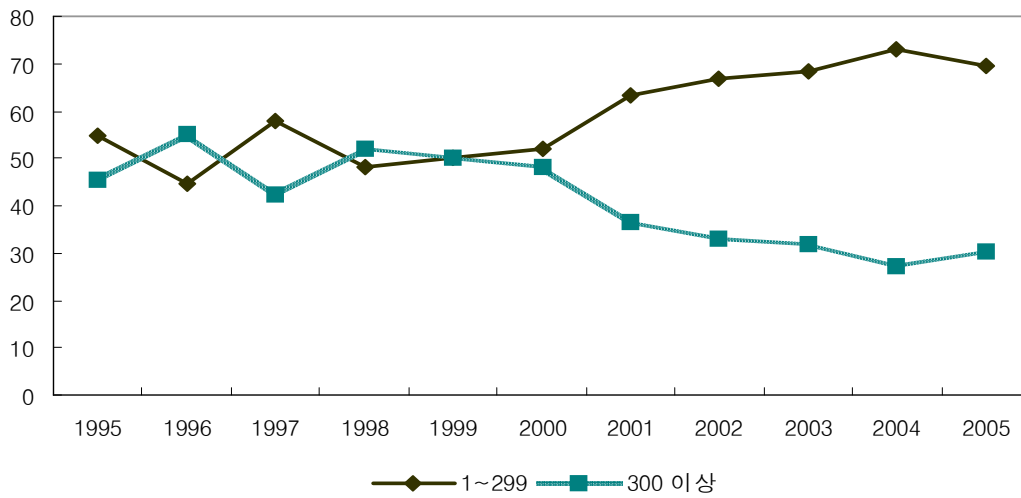
- 노사분규의 측면에서 비정규·중소영세기업의 분규증가로 기업별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반면 산별 노사관계는 분규 안정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
 - 대기업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따라 분규건수는 전년대비 30% 감소한 반면 비정규·중소영세기업의 분규 증가로 근로손실일수는 전년대비 2.2배 증가하고 노사분규 이원화 양상이 지속되어 체감노사분규가 높고 기업별 노사관계불안정성 심화

<표 1> 파업현황

구 분	2006.8.05 현재	전년동기
발 생	76	108
해 결	46	89
미해결	30	19
근로손실일	566,822	257,288

자료 : 노동부, 노사관계 일일상황, 2006.8.7

[그림 1] 기업규모별 분규(1995~2005)



자료 : 노동부 분규통계(2006).

- 보건과 금속의 경우 산별분규는 점차 줄어들거나 적지만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개별사업장 분규는 금속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, 이것이 주로 제도화하지 않은 비정규 효과라는 점에서 산별파업은 늘어나고 있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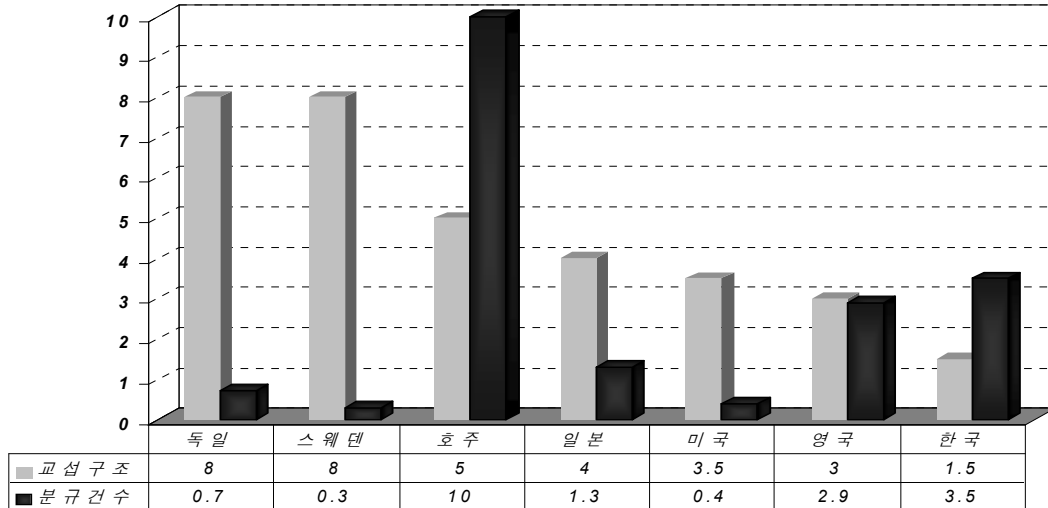
<표 2> 산별파업과 기업별파업 비교: 금속 및 보건

	구 분	2004년	2005년
산별교섭	금속노조	6일 28시간 부분파업	7일 30시간 부분파업
	보건의료노조	13일 전체파업	3일 전체파업
개별파업건수	금속산업	101	138
	병원산업	67	12

자료 : 노동부통계(2006년 1월).

- 해외사례와 비교해보면 교섭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인 독일 및 스웨덴의 분규가 적고 분권적인 영국 및 한국의 분규가 많다는 점에서 산별 노사관계가 분규를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음

[그림 2] 해외 교섭구조 분권화정도 및 분규건수 비교(2001)



주 : 교섭구조가 1에 가까울수록 분권적, 분규건수는 1에 가까울수록 적음

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(2004), OECD Employment Outlook, 2006

○ 교섭구조의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최소 6개 유형의 교섭구조가 형성되는 등 기업별 교섭이 뒤흔들려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, 산별 교섭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교섭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하여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

- 2000년대 이후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지역·업종·산별 교섭의 비중이 30% 이상으로 증가하고 6개 유형의 교섭구조가 형성되어 기업별 노사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

<표 3> 교섭구조 다원화

		교섭(협의) 범위			
		기업	지역	산업(업종)	전국
교섭 내용	기업고유사항	1. 기업별교섭	2. 대각선교섭	3. 대각선교섭	×
	지역·업종·산업 공통사항	×	4. 지역집단교섭 혹은 협의	5. 산별(업종)교섭 혹은 협의	×
	전국공통사항	×	×	×	6. 전국적 협의

- 울산건설플랜트 및 현대하이스코 지역사회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산별교섭은 지역·업종·산별협약을 제도화할 수 있음

○ 교섭내용의 측면에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교섭내용은 기업 고유사항에 한정됨으로써 IMF 이후 불거진 고용불안정, 제조업공동화, 원하청제도개선, 정규-비정규 격차완화 등 산업·업종별로 제기되는 의제들을 협의할 수 없는 반면 산별교섭은 이와 같은 기업의 부적이고 중장기적 의제들을 협의하기에 용의함

<표 4> 주요 산별의제: 금속 및 보건(2005)

	주요 협의의제
금속노사 (산별협약)	-사내하청·비정규·이주노동자 노조가입허용, 고용보장, - 하청업체 노조설립에따른 계약해지·불법파견·용역사용 금지 -산별최저임금: 월765,060과 시급3,280중 높은금액적용 -해외공장신설시 조합과협의, 조합원고용안정·노동조건 관련사항은 60일 전에 노조에통보및합의
보건노사 (협의내용)	-주5일제(노: 전면확대, 사: 단계적확대) -비정규직고용및노조활동(노: 전면보장, 사: 노력, 노조활동보장수용불가) -최저임금제(노: 월 82만원, 사: 월 69만원) -다인병상 확대(노: 70%, 사: 50%)등 의료공공성 확보

○ 중장기적으로 산별 노사관계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협력을 통해 단기적 수준에서의 전환비용을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화 효과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

- 이를 위해 전국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산별·지역·업종 수준에서의 중층적 노사정 협의를 강화하며
-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분리하고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교섭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고
- 교섭구조 안정화를 위한 법·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
- 노사 모두 고용형태별, 규모별 격차완화를 위해 노력하고
-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의 전문적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노사정 공동으로 모색되어야 함

선진국들의 단체교섭 경험

담 당 자	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
전 화	
매 수	2 매

- 이 글은 각국의 교섭형태 및 노사관계가 정부의 역할, 산업구조 및 사회·제도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여전히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여년동안 단체교섭 분권화가 하나의 특징임을 강조하고 그 분권화의 정도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규명함
- 교섭구조의 분권화 원인은 세계화 효과와 탈규제적 산업정책, 기업구조의 분권화 및 정부의 보수적 노동정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구조 분권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안함

<주요내용: 선진국들의 단체교섭 경험>

- 선진국들의 경우 단체교섭이 집중화되면 될수록 노조의 조직력이나 영향력이 강하고 노조조직율도 높으며 기업이나 공장수준의 근로자 경영참여기구가 발달하고 파업의 수도 줄어들음
-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층적 교섭구조(multi-tiered bargaining structure)를 가지며, 이중 지배적인 교섭수준을 단일사용자교섭(single-employer bargaining)과 복수사용자교섭(multi-employer bargaining)으로 나눌 때 최근 단일사용자교섭이 증가하는 추세임
- 교섭구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지난 20여년 동안에 이태리와 일부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 단체교섭구조의 지배적인 변화는 분권화(decentralization)이며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임

<표 1> 영국에서의 민간부문의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추정, 1950-1990

단체교섭의 정도 (extent)와 성격	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단체교섭이 적용되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의 비중 (coverage of collective bargaining, %)						
	1950	1960	1970	1980	1984	1990	1998*
임금이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	20	5	30	30	40	50	76
임금이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됨	80	75	70	70	60	50	24
산업이나 지역수준에서의 복수사용자단체교섭	60	45	35	30	20	10	4
회사나 공장수준에서의 단일사용자단체교섭	20	30	35	40	40	40	20
위의 추정이 나온 출처	여러 출처	여러 출처	여러 출처	WIRS 1	WIRS 2	WIRS 3	WERS 4

주 : * 1998년의 추정치는 Brown et al. (2000: 615-616)에 근거하여 저자가 작성함.
자료 : Brown, Marginson, and Walsh (1995), p. 137.

- 교섭구조 분권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미국은 탈규제적인 산업정책, 독일은 세계화 추세속에서 이루어진 기업들의 동독이나 해외로의 공장이전, 영국은 사용자단체의 단결 약화와 정부의 보수적인 노동정책, 기업구조의 분권화 등임